

# 모순에 휩싸인 궁핍한 도시의 수호신

## 베에르 부르디외의 사상과 《구별짓기》

박동천

서울대 강사·미학

알랭 투렌트, 레이몽 부동(Raymond Boudon) 등과 더불어 프랑스 사회학을 대표하는 인물(1930~). 끌레쥬 드 프랑스의 교수이자 동시에 사회과학고등연구원(ENS)에서 교육 및 문화사회학 세미나 지도교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회과학연구는 문록》(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이란 격월간 학술지의 발행인, 시카고·프랑크푸르트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연구기관을 오가며 때로는 17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시킨다는 ‘젤 플라잉 프로페서’. 스포츠에서 교육, 도시빈민층 문제를 거쳐 예술·문화현상 전반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수반하는 모든 주제를 섭렵하는 이론가.

그러나 마르크스나 베버, 뒤르케임의 전통에서 이론연구를 통한 가장 첨예한 방식으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에 가담하는 투사.

이와 같이 부르디외의 활동반경을 구획짓기만도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의 학문적 여정을 짐작케 해주는 저서들만 대강 살펴보기에도 20세기 후반 진보적 사유를 자처하는 모든 이론에 관한 지식이 동원되지 않

고는 간단히 그 윤곽이 그려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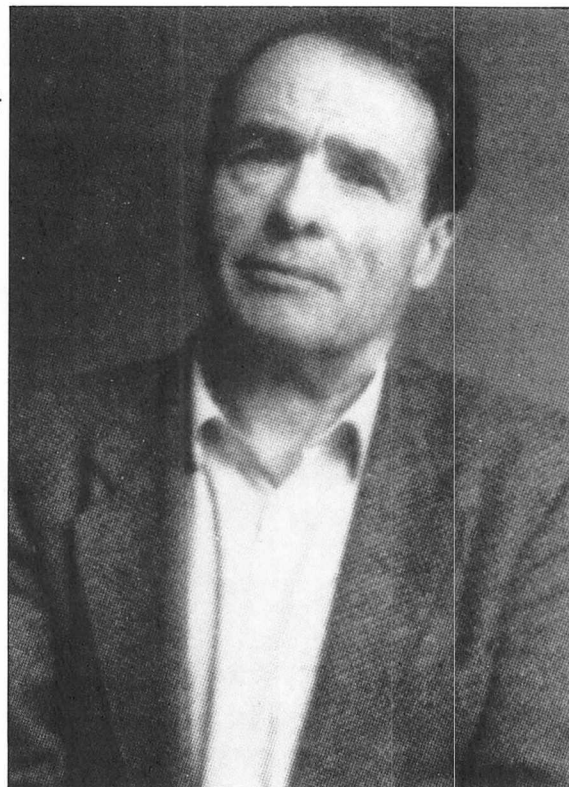
이번에 번역된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원제: *La distinction. Minuit* 출판사, 1979)은 그의 다른 저서 《문화적 재생산》(*Ce que parler veut dire*)이나 《실천적 의미》(*Le sens pratique*) 등과 더불어 그의 저작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이 책은 부르디외가 사회학이론의 내적 전개에 있어 한 주류의 위치를 점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중대성에 비추어 부르디외가 이 책을 통해 주장하는 이론의 정당성과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사회학 내지 사회이론 일반의 시각에서 본 이 책의 의미, 그의 이론체계 전체 안에서 이 책의 위상, 마지막으로 미학적 관점에서 그가 제시하는 문화·예술사회학의 난점을 지적하는 방식의 글 읽기가 유용해보인다.

### 문화적 상징의 계급투쟁

《구별짓기》 전권을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다른 텍스트의 독서경험이 있다. 다름아닌 헤겔의 《정신현상학》. 그가

부르디외의 《구별짓기》는 그 이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지러운 만큼 우리 주변에서 성행하고 있는 문화이론, 문화연구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참고서다. 더욱이 사회비판에 실려야 할 실천적 힘이 어떤 번뇌 속에 싹트는가를 보여준 걸작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학을 대표하는 이론가 부르디외.(1930~)

운데 특히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과 ‘불행한 의식’에 관한 장이다. 이는 비단 2부 4장 ‘장의 역학공간’의 ‘상징투쟁’ 절이 상징적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문화적 박탈 등에 할애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 연구서에 일관된 중심 생각이 ‘인정을 위한 싸움(Kampf um Anerkennung)’이라는 헤겔 사회철학의 주요 사유개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옳다.

그러나 부르디외의 이론상 전제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이데올로기 비판이나 계급투쟁으로서의 사회운동과는 거리를 지닌다. 사회적 갈등과 그 성격에 관한 기존 사회학상의 질문은 그에게서 문화적 지배구조에 의해 상징적 폭력 또는 ‘유순한’ 폭력이라고 할 만큼 숨겨져 있고, 무의식적으로 실천되는 문화적 상징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갈등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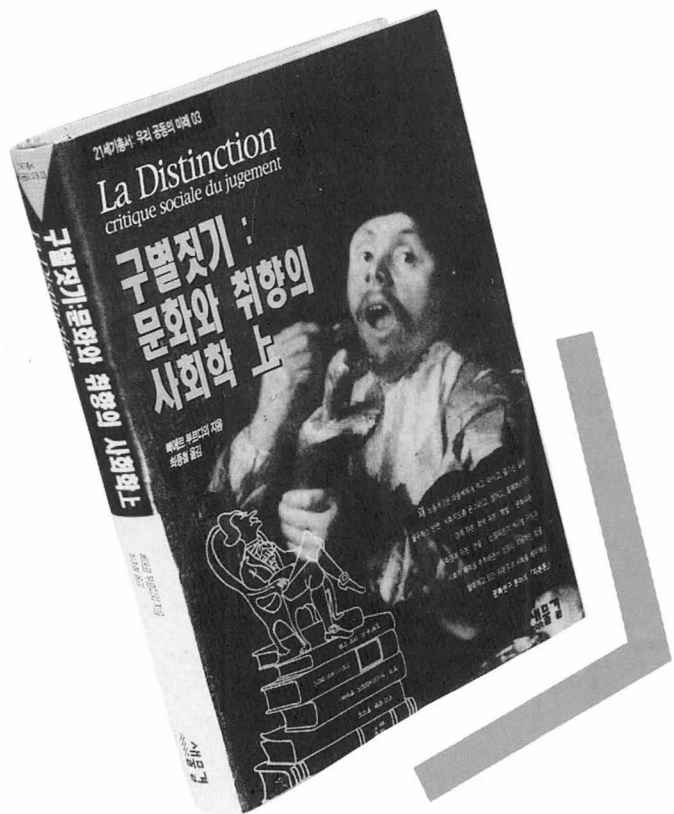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의 방법론상 배경은 후기구조주의와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역사적 유물론의 전통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결합되면서, 권력관계와 경제구조에 바탕한 사회관계의 역동성이 우리의 사유, 표상, 지각, 더 나아가 행동까지 조정하는 무의식적인 심적 구조를

통해 재해석된다.

그럼에도 부르디외의 이론들을 독창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은 ‘입장들의 체계’ ‘아비투스’ ‘사회적 재생산’과도 같은 기본 개념들이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사회이론은 문화적 자본의 메커니즘에 따라 평등주의의 이데올로기라는 가면 아래 사회적 지배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기본명제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런 이론의 배경 아래 합리적 근거에서 비롯된 사회구성원간의 연대성, 그리고 교육, 문화 등 사회적 공간내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본래의 문제가 공공적 토론을 거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당위성 등이 수용될 수 있을까?

### 어떻게 민중의 상상력을 연출할까

일단 책을 손에 쥔 독자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방대함이다. 3부로 구성된 책을 2부까지만 떼어서 상권으로 만들었는데도 400쪽이 넘는 두툼함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도표, 본문을 꼼꼼히 읽기 전까지는 왜 이런 사진들이 실렸을까 의아하게 되는 희한한 도판, 거기에서 사회사의 원사료로 여겨졌던 각종 인용문 등이 과연 부르디외가 ‘대식가’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라블레



# 상품으로서 책의 유형

## 번역물 찾기 ④

조승훈

을지서적 외서부 사장

**‘소설’ 장르 하나 안에도 여러 갈래의 소장르가 있으며, 각기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독자가 가장 원하는 책을 찾기 위해선 이 여러 갈래의 유형부터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방대한 양의 영문서적을 거래상의 유형별로 분리하고 그것을 출판사와 도매상별로 정리해보면 규모는 어느 정도 줄지만 영리 또는 특정목적에 위한 번역서를 찾기 위해서는 좀더 추려내야 한다. 또 지난해에 열거한 명문출판사 이외 출판사의 서적 중에서도 원하는 서적을 선별할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책을 만들어내는 출판사의 시각에서 선별했으나 책을 읽는 독자의 시각에서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독자가 찾고 있는 책은 어떤 것인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은 어떤 것인가? 상품으로서 책의 유형을 찾아본다.

고객이 찾고 있는 상품 분석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욱이 90년대 들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Customer-oriented, market-driven 또는 Segmentation marketing, nich marketing이란 표현이 말해주듯 다양한 상품에 길들여진 현대 소비자들의 취향과 기호는 갈수록 까다로워졌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간의 대체 가능성이 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15권을 살펴보자.

매주 발표되는 이 리스트가 인기순위대로 나열됐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해다. 15개 소설 중에는 서로 성격을 달리해서 그 나름대로 독자적 독서군을 거느리고 만 소설과 대체 불가능한 최소한 6~7개 장르의 소설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책들은 각기 자기 장르에서 으뜸이나 버금가는 책들이고, 순위는 차라리 독자의 규모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설·비소설을 상품의 성격별로 분류해 본다.

### ■소설

1. 일반소설 : 문학·대중·역사소설 등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들.

2. 미스터리 :

Whodunit - ‘누가 그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는 범인중심 소설로 영국식과 미국식이 있다.

Detective 또는 Gumshoe - 범죄를 해결하는 사람중심 소설로 탐정 또는 추리소설. 역시 영국식과 미국식이 있다.

Police Procedures - 경찰·검찰의 기술적인 문제처리 또는 법정에서 전개되는 법이론대결 및 법정드라마.

스파이 - 영국식, 미국식, 국가의 스파이, 산업스파이, 첩보보다는 007과 같이 등장인물의 라이프스타일이 주제가 되는 것. 또는 톰 클랜시의 소설같이 등장하는 무기가 주제가 되는 것 등.

3. Horror : 공포소설 또는 도깨비이야기. 전설적 또는 단순한 도깨비이야기. 의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괴물이야기

4. 과학소설(Science Fiction) : 파열·접촉·시간·미래·진화·로봇 등 여러 갈래 주제별로 나뉘어 있다. SF저자들은 그 나름대로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저자에 심취한 독자는 종교적인 열의로 그 저자의 책을 애독하며 일반적으로 소장르 사이의 대체가능성이 희박하다.

Space Opera - 우주전쟁, 외계생물과의 접촉.

Hard Sci Fic - 자연과학적 논리에 치중. 시간 Sci Fic - 타임머신.

Highstyle Sci fic - SF형식을 택한 문학소설.

5. Fantasy :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환상적 세계를 그리는 장르로 전설·신화·마법에서부터 과학적 논리의 규제를 받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Proto(原), High(전통), Heroic(영웅), Cosmic Horror(우주 공포), Rational(이성적), Historical(역사적), Science(과학) Fantasy 등의 갈래가 있다.

6. 베스트셀러 작가 : 장르를 초월해서 소설을 출판하면 자동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가군. 번역서로는 제일 중요한 부문일 것이다.

7. 기타 : Romance, Western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

의 소설 주인공 가르강튀아를 연상시키는 부르디외의 이 외견상 거식증은, 그렇지만 단순히 그 자신의 ‘취향’의 소산만은 아니다.

여기서 그의 이론적 출발점이 구조주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피에르 망사르가 《프랑스 현대사회학》에서 지적하듯 레비 스트로스의 인류학 저작은 부르디외의 학문 수련기간(1950~55)에 “한 예외적인 지적 야망의 전범”을 제공했다. 아마 이런 이론적 영감의 원천은 그로 하여금 뒤르케임적인 유산하에 《알제리사회학》(1961) 같은 인종학작업을 산출하기도 했으나 《사회학사관 직업》(Le Métier de Sociologue)에서는 구조주의모델에 바탕한 사회학이론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연구대상의 모든 구성적 요소들을 낱알이 열거하고 단위들을 조사하여 그것들의 상관관계, 특히 이항적 대립관계로 이해한다는 구조주의 기본태도는 어느 정도 ‘박물지’적 측면을 노출시키는 이 책의 외양을 수궁하게 해준다. 그렇지만 편집상의 수사적 효과까지 고려한 사진들이나 사회적 삶의 일상을 콜라주한 듯한 각종 인용문은 민중적 삶의 구조가 그렇듯 비체계적이고 비형식적이며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저자거리 숨어 있는 ‘민중의 시학’을 겨냥한 부르디외의 연출의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구별짓기》에 이르러 부르디외의 모든 질문들, 연구동기, 개념장치, 이론적 전략 등이 집대성된다는 사실은 이전의 저술들과 비교하면 쉽게 드러난다. 예컨대 《평범한 예술》(1965) 《예술애호》(1967) 등의 연구성과는 《재생산》(1971) 등의 논지와 결합되어 이 책에서 종합을 이룬다.

### 미적 판단의 경험주의적 환원

부르디외는 《구별짓기》의 본문을 시작하면서(34쪽), “여기서 사회학자들은 특히 사회적인 것이 부정되는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책의 부제가 ‘사회적 판단력 비판’이듯, 그는 이 자리를 빌려 칸트의 미적 판단력의 철학적 견이에 도전하며 심지어 ‘해체론’의 이름으로 칸트의 ‘미와 숭고 분석’을 재해석한 데리다의 독법도 문제시한다.

전통적 미학의 문제를 사회학주의로 환원해 보려는 부르디외의 야심찬 기획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기존의 강단미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나 궁극적인 문제해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볼거리, 먹거리, 입을거리 등 ‘문화’의 편제는 예술이 이제 알래스카 정어잡이 관광이나 판·사이판 원주민 통째리 바베큐 시식과 별다를 것 없이 그 고유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더욱이 이러한 예술의 몰타기현상과 함께 현대예술은 점점 관객의 미적 만족이나 기대는 무시한 채 이해하기 어려운 창작행위로 고립되고 미적 판단에 근거해야 할 비평은 고유한 자신의 기능을 포기한 지 오래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칸트가 ‘주관적 보편성’이라는 이율배반적 성격의 미적 판단을 구명하려 했던 시도는 한낱 형이상학적 환상이었을까? 극히 소수이긴 하나 현대예술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평적 담론의 성격을 이론화하려는 지적 노력이나, 그러한 문제의식 아래 비평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평론작업 또한 하나의 문화적 지배에 의한 상징폭력에 불과한 것인가? 미적 판단과 그에 기초한 비평담론을 취향의 판단, 개인의 기호로 설명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사회적 구조를 통해 매개된다고 해도 미적 체형의 고유한 구조를 무시한 나머지 더이상의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이론적 어려움이 지적될 수 있지만 부르디외의 《구별짓기》는 오늘날 어지러운 만큼 우리 주변에서 성행하고 있는 문화이론, 문화연구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훌륭한 참고서이다. 더욱이 ‘위기’에 처한 이 땅의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향해 사회비판에 실려야 할 실천적 힘이 어떠한 번뇌 속에 싹트는가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부르디외의 사회학은 오늘 이 근대화의 모순 속에 휩싸인 궁핍한 도시(Bourg)를 지키는 수호신(Dieu)이 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

새물결/A5신/416면/18,000원, 최종철 옮김